

영등포역 전통시장 제품 판매전 개최

- 동행 축제를 맞아 서울 영등포역에서 전통시장 제품 판매전 개최
- 판매 수익 중 일부는 연말·연시에 기부를 통해 불우이웃 돕기에 활용 예정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은 12월 동행 축제를 맞아 영등포역사 3층 공용통로(롯데백화점 3층 야외 판매장)에서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전통시장 제품 판매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행 축제란 중소기업부에서 주관하고 대형유통사,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함께 참여하는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적으로 개최하는 소비 축제이다.

특히 12월 동행축제는 판매 수익과 물품을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나눔 캠페인을 펼쳐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실속 있는 소비와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행사로 추진된다.

한편 영등포역 판매전의 주요 판매 품목은 각종 반찬류, 떡, 홍삼, 참기름, 들기름, 김밥 등 전통시장에서 주로 판매되는 제품들과 꽃과일차, 시리얼 등 MZ세대에도 어필할 수 있는 제품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또한 참여 상인들의 판매 수익 중 일부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노조 및 임직원들의 성금을 모아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병권 청장은 “이번 행사가 참여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와 전통시장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며 “불우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본 판매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고 밝혔다.

담당 부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책임자	과 장	이범선 (02-2110-6340)
		담당자	주무관	한준희 (02-2110-6343)

